

지소연 “새 집서 첫 승, 예감이 좋다”

(첼시 레이디스)

통신원 리포트

WSL 시즌 첫 경기 브리스틀시티전 6-0 승
“새 구장 킹스메도우 스타디움, 마음에 쏙”

지소연이 소속된 첼시 레이디스가 9월 25일(한국시간) 2016~2017 WSL(여자슈퍼리그) 개막전에서 브리스틀 시티를 6-0으로 꺾고, 기분 좋게 새 시즌을 시작했다. 이번 시즌부터 영국 뉴몰든의 킹스메도우 스타디움으로 홈구장을 옮긴 첼시 레이디스는 최근 2016 스프링 시리즈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려 새로운 시즌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지소연은 이날 후반 15분에 투입돼 30분가량 소화했다.

영국축구협회는 이번 시즌부터 WSL 리그를 남자 프리미어리그 시즌기간과 맞춰 가을에 시작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리그 개막에 앞서 첼시 레이디스는 이전에 임대로 사용해왔던 스테인즈 타운(남자 7부리그)을 떠나 첼시에서 새로 구입한 킹스메도우 스타디움으로 옮겼다. 킹스메도우 스타디움은 임대대 아닌 첼시 레이디스 팀과 첼시 아카데미 팀들이 사용한다.

현재 남자 4부리그 AFC윌빙턴과 경기장을 공유한다. 이날 약 1500명의 팬들이 모인 가운데 첼시 관련 상품을 판매하거나 경기 전 다양한 이벤트를 시선을 끌었다. 인근에 운영하는 버스나 광고판에 첼시 레이디스 경기를 홍보하는 광고도 몇 주 전부터 흔히 볼 수 있었다. 몇 년간 좋은



지소연이 소속된 첼시 레이디스는 9월 25일(한국시간) 2016~2017 여자슈퍼리그(WSL) 개막전에서 브리스틀 시티를 6-0으로 꺾었다. 지소연은 후반 15분 교체로 들어가 30분 가량을 소화했다. 런던 | 허유미 통신원

성적을 거두며 발전한 첼시 레이디스를 향한 관심과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에서 초반부터 첼시 레이디스는 강하게 브리스틀을 압박했다.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한 막달레나 에릭슨의 데뷔 골과 함께 총 6골을 몰아넣었다. 후반에 투입된 지소연은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프리킥을 얻어내는 등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득점 기

회도 만들었지만 아쉽게 빛나지 않았다. 경기가 끝나자 홈 팬들은 팀에게 기립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였다. 다음은 지소연과의 일문일답.

-오늘 개막전을 크게 이겼는데 소감은?
“시즌 첫 경기인데 새 구장에서 기분 좋게 출발해 기쁘다. 첫 경기인데 분위기도 좋고 팀도 팬들이 만족하는 경기를 한 것 같다. 앞으로 쪽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한다.”

-후반에 득점 기회도 있었는데
“사실 분명 넣을 수 있었는데 슛하려고 하던 찰나에 동료선수도 자세를 잡고 있었다. 그래서 슛을 할까 패스를 할까 순간 고민했다. 그러던 차에 타이밍이 안 맞아서 아쉬웠다. 그냥 내가 슛할걸 그랬다.(웃음)”

-주중에 바이에른 뮌헨과 챔피언스리그 홈경기도 앞두고 있는데?

“이번 프리 시즌 오스트리아 전자훈련에서 바이에른 뮌헨 여자 팀과 경기를 한 번 했는데 매우 강한 팀이었다. 독일 여자 리그가 강하기도 하고 워낙 좋은 팀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도 준비를 잘 했고 홈경기니까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킹스메도우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뛰어보니 어떤가?

“홈장의 환경이 이전보다 매우 좋아졌다. 임대대 아닌 우리 스타디움이라 첼시에서 잔디도 관리해줘서 뛰기도 좋다. 위치도 런던 한인 타운과 가까워서 한국 팬들이 오시기도 전보다 편할 것 같다.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 같아서 마음에 든다.”

런던 | 허유미 통신원

KCC 송교창 “엘리엔트리 후회한 적 없다”

2년 전 대학 진학 포기하고 곧바로 프로행
KBL 드래프트 ‘엘리엔트리 열풍’의 주역



송교창

KBL은 10월 30일 '2017 KBL 신인드래프트'를 실시한다. 신인드래프트는 구단의 미래를 이끌 유망 선수들을 뽑는 행사다. 올해 드래프트에서는 '엘리엔트리'가 키워드다. 엘리엔트리는 대학졸업반(4학년) 이전에 프로 드래프트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한양대 2학년 유현준(20·181cm)에 이어 중앙대 양홍석(20·199cm)도 1학년을 중퇴하고 드래프트 참가신청서를 냈다. 이들의 참가로 올해 드래프트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KCC의 송교창(21)은 프로농구에 엘리엔트리 바람을 몰고 온 선수다. 삼일상고 출신으로 2015년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신인드래프트에 참가했다. 당시 3순위 지명권을 갖고 있던 KCC는 과감하게 고졸선수 송교창을 선발했다. KCC의 선택은 대성공이었다.

송교창은 데뷔시즌(2015-2016) 20경기 출전

해 평균 1.5점 1.7리바운드 1.4어시스트에 그쳤지만 2016시즌 엄청난 성장세를 자랑했다. 52경기 출전해 평균 11.88점 5.6리바운드 1.9어시스트를 기록을 남겼다. 기량발전상을 받았다. 이제는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9월 24일 싱가포르에서 막을 내린 마라이언컵에서도 팀의 주축선수로 좋은 활약을 펼쳤다.

송교창은 엘리엔트리 선수 증가에 대해 “내 영향 때문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다만 내가 좋은 사례를 남겼다는 점에서는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KCC 추승균(43) 감독은 “교창이가 처음 입단했을 때만해도 레이아웃을 제대로 못했다. 고교무대에서는 자신보다 큰 선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대충 짜도 넣을 수 있다보니 습관이 잘못 들었다. 이 부분을 고치는 데에 1년이 걸렸다. 지금은 잘 쓴다. 이처럼 프로에서의 경험이 교창이의 기량 발전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송교창은 “빨리 프로에 오는 것이 좋다는 말은 못하겠다. 각자 상황이 다를 테니까. 다만 내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다. 다시 고교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도 프로를 선택할 것이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저스틴 토마스가 25일(한국시간) 미국 애틀랜타 이스트 레이크 골프클럽에서 막을 내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페덱스컵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애틀랜타(미 조지아주) | AP뉴시스

페덱스컵 챔프 토마스 ‘1000만달러 잭팟’

PGA 투어 챔피언십 2위...총 포인트 3000
내달 CJ컵@나인브릿지 출전 차 한국 방문

저스틴 토마스(24·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페덱스컵 챔피언십에서 2년 만에 최고 상금이 걸린 페덱스컵 플레이오프에서 정상에 등극했다.

토마스는 9월 25일(한국시간) 막을 내린 PGA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875만 달러)에서 11언더파 269타로 2위를 차지했다. 페덱스컵 포인트에서 총 3000점을 따내 2340점에 그친 절친 조던 스피스(24·미국)를 따돌리고 1000만 달러(약 113억원)의 상금을 손에 넣었다.

페덱스컵 포인트 1위를 달리던 스피스는 투어 챔피언십에서 7언더파 273타로 공동 7위에 머물면서 토마스에게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다.

토마스는 2016~2017시즌을 자신의 골프 생

애에서 최고의 한 해로 장식했다. 데뷔 시즌에 1승에 그쳤던 토마스는 8월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생애 첫 메이저대회 타이틀을 거머쥐는 등 올해 5개 대회에서 정상을 밟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PGA투어 페덱스컵에서도 챔피언에 등극하며 명실상부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다. 골프장 헤드 프로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토마스는 고교시절 PGA투어 대회에 데뷔했을 정도로 유망주로 각광을 받았다. 알라바마 대학 시절이었던 2013년 팀을 이끌고 NCAA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013년 프로로 전향했다. 켈러파인 스포츠를 통해 PGA투어에 뛰어들 뒤 2부 웹닷컴 투어에서 경력을 쌓았고, 2015년 1부 시드권을 손에 넣으며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선수들과의 경쟁을 시작했다.

토마스는 10월 19일 제주도 나인브릿지 골프장에서 열리는 2017~2018 PGA투어 CJ컵@나인브릿지(총상금 925만 달러)에 출전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최홍성 기자 gtyong@donga.com



이용대(왼쪽)와 손연재(왼쪽 두 번째)가 9월 25일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체육인 자원봉사자 발대식'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최종(오른쪽)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한체육회-IOC-UN ‘안전한 평창올림픽’ 의기투합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 北 도발 우려
11월 ‘평화올림픽 결의대회’ 열기로

픽의 성공개최 여부는 느낌표가 아닌, 물음표 상태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낙관적인 입장이다. 9월 25일 서울 공릉동 태릉선수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대부분이 예정대로 대회에 출전할 것으로 본다. 어디까지나 ‘북한 위협이 계속되면’ 위협하지 않을까 우려에서 나온 입장이다. 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는 아닐 것”이라는 견해를 전했다.

최근 이 회장은 페루 리마에서 열린 IOC 총회에 참석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IOC 집행위원 및 핵심인사들에게 평창올림픽의 지원을 요청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총회에도 참석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IOC가 곧바로 응답했다. “최소한 동계올림픽이라도 평화적으로 치르자는 메시지를 UN에 전달했다. 이에 11월 13일 UN에서 ‘평화올림픽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연계된 문제는 또 있다. 북한 선수단의 참가 여부다. 정부와 체육회는 어떠한 형태론든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해주기를 희망하지만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다. 북한의 참가가 중요한 이유는 평화올림픽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적어도 올림픽 개최 시기만큼은 겉으로나마 평화 무드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찬란 여론은 분분하다. 2014년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 1명도 선수를 출전시키지 못한 북한은 자력으로 평창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지 못했다. 다른 국가 선수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어렵게 얻는 올림픽 출전의 영예를 북한이라고 해서 공짜로 출전시키면 이 또한 원칙에 위배된다.

이 회장은 “우리 정부와 UN, IOC가 전부(북한과 평창올림픽 문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어느 시점에서는 타결될 것이다. 바흐 위원장이 11월 ‘평화올림픽 결의대회’에서 평창올림픽이 모두가 참여하는 인류 축제가 되도록 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전하면 기류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태릉선수촌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한 북한의 도발은 최근 지구촌의 핫이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정치와 분리된 스포츠”를 끊임없이 외치지만 무 자르듯 딱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다.

북한 문제가 거듭 거론되는 것은 내년 2월 개최될 2018평창동계올림픽 때문이다. 정부와 체육계가 합심해 총력을 기울이지만 거듭된 북한의 도발 탓에 자국 선수단의 안전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불편한 시선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열마 전에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 전통의 동계스포츠 강국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면 평창에 나갈 수 없다”는 조건부 불참을 선언했다. 물론 이후 철회 입장을 밝혔으나 그만큼 평창올림픽



금주의 골프회원권 시세		금주의 회원권 매물	
회원권 종류	시세 (단위: 만원)	회원권 종류	매물 (단위: 만원)
남촌CC(법)	36,000	송주CC	6,700
뉴코리아CC(법)	8,900	이포CC	2,800
동부산CC(법)	17,000	캐슬레스CC	2,400
비전힐스CC(법)	34,000	플라자용인CC	4,000
인천국제CC(법)	12,000	한원CC	2,900

가을 성수기 명문골프장 골든타임 보장!
입회금 100% 반환 보증, 특별회원권보양중!
중앙멤버스 | 입회문의 : 02-556-7000